

열매를 맺기 위해 선택됨

결에

빅 콜먼

소개

여러분은 살면서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의 용서를 거의 받을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더 좋게 들리게 하기 위해 당신이 한 일을 "실수"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과 매우 가까운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다. 당신은 그것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런 종류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연구는 거의 "용서할 수 없다"고 느꼈지만 경험을 통해 배운 사도 중 한 명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으며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과를 공부하고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이 수업에 사용된 성구

요한복음 15:16

마태복음 16:13 – 23

잠언 19:21

마태복음 26:31 – 35

스가랴 13:7

마태복음 26:69 – 75

사도행전 2:38 – 41

배경

어느 주일 교회에서 목사님이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라는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경전 중 하나로 사용했다. 그는 그날 성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지만, 그 성구가 내 주의를 끌었다.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 뭔가가 나를 생각하게 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 택함을 받았습니다... 오래 지속될 과일.

수요일 저녁 성서 연구에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둘과 둘"을 합치면서, 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목표를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이 연구를 시작한 성구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온다. "선택받은"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eklegomai"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정의가 있습니다.

- 자신을 위해 고르고, 선택하고, 고르거나 선택하는 것
 -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심, 즉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심
 - 사무실을 위한 하나 선택
 -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총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신 사람을 선택하시고, 나머지 인류와 분리하셔서 특별히 당신 자신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그분의 은혜로운 감독으로 계속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 즉, 이스라엘 백성
 -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심으로써, 그분이 비종교적인 군중들로부터 구별하시고, 그분이 그분 자신에게 소중하게 여기신 사람들로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왕국의 시민으로 만드신 사람들로서: (야고보서 2:5) 그래서 선택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로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고기를 잡다가 주님께 의해 그의 형 안드레와 함께 "택함을 받았습니다"(마 4:18-22).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 *그분의 은총을 받기에 합당하고, 나머지 인류로부터 분리되어, 특별히 그분 자신의 것이 되고, 그분의 은혜로운 감독에 의해 끊임없이 보살핌을 받기에 합당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인류로부터 분리시켜 "그분의 은혜로운 감독하심으로 항상 시종하도록" 선택하셨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부활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세 해 동안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다.

베드로는 3년 동안 가장 위대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는 율법이 해설되는 것을 들었고, 수 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구절들에 대한 계시가 주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확증해 주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을 목격하고 심지어 그 기적에 참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 물 위를 걷기
- 5000명을 먹이시다
- 4000명 먹이기
- 자기 어머니의 치유
- 마귀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고 있다
- 소경, 사망, 병어리의 치유
- 나병 환자를 고치심
- 등등...

그래서 베드로가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 되었다고 느끼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다른 인류와 분리되어 특별히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분의 은혜로운 감독으로 계속 보살핌을 받"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로 구별되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선택" 된 것입니다.*

요점: 모든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과일.

요점: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은혜로운 감독으로 끊임없이 참석"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요점: 당신이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당신은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선택받았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선택받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해는 되지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이해"하지 못했는지, 즉 그리스도가 실제로 누구인지 또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본질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는지 봅니다. 마태복음 16:13-23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의 첫 부분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를 통해 예수가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예수께서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를 제쳐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결코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심.

베드로에 대한 예수의 반응 역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대는 내게 걸림돌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느니라."

그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움직임을 경험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 직후에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고 말았다. 베드로를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 후 성령님, 상황, 성경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그분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놓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교회를 떠난 후 월요일 오후가 되면 좌절하고, 화가 나고, 증오스럽고, 괴로워진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토록 쉽게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고 부활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이해"했지만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

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더 큰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오순절 날까지 온전히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제 삶에서 일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 하나는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이 성구를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의도(좋은 나쁜든), 우리의 "실수"(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그리고 우리 자신의 계획(그분의 뜻 안팎)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목표와 목적을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생애에서 입증됩니다.

마태복음 26:31-35을 읽어보세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장사지, 그리고 다시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들 중 한 사람이 그분을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베드로에게 그날 저녁에 그분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에게 충성을 유지하는 것이 있었다고 확신하지만, 스가랴 13장 7절에 예언된 성경 구절과 예수가 인용한 구절은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 베드로를 포함해서.

마태복음 26:69-75을 읽어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그의 의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결코 실족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결코 의도하지 않았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는 그의 친구이자 스승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마태복음 16:16)이라고 선언하신 분도 부인했습니다.

경전에는 베드로가 그날 밤 "심히" 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쓸쓸하게"라는 단어는 "가슴 아픈 슬픔으로"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pekros"에서 유래했습니다. 신랄한, "고통스럽게 감정에 영향을 미치다, 찌르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단지 "기분이 나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고통스러웠고, 그의 영혼을 꿰뚫었다. 그는 자신의 목표(그리스도로부터 결코 떨어지지 않겠다)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인함으로써* 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으로 인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적이 있는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행동이나 말을 되돌릴 방법이 없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모든 것이 망가졌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희망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과거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위한 그분의 목표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부활 후 50일 후, 베드로는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날 수천명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사도행전 2:14-41). 그 결과 3000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그리스도를 부인하다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몇 년 후 죽을 때까지 그를 통해 계속 일하셨습니다. 수세기 동안 문자 그대로 수십억 명의 회원을 보유해 온 오늘날 존재하는 교회는 부분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중에 "페크로스"로 울었던 사람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느낀 사람과 함께.

베드로가 느꼈던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와 상관없이 당신의 삶에서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요점: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삶에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요점: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점: 성령의 능력과 겸손은 베드로의 삶에서 "변화의 주체"였습니다.

요약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회복할 수 없고, 기쁨에 대한 희망도 없으며, 우리가 직면하는 결과에서 선한 것이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무가 불모지"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택하심을 주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유일한 열매는 "좋은" 열매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실수를 저지르게 될지 알고 계셨지만, 어쨌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그분은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으실 수 있으며, 우리의 "최악의" 결정에서 좋은 것을 이끌어 내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열매가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권능을 통해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끄실

것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면, 그분은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며, 당신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돌리실 것입니다. 그대가 불모의 나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기억하다:

그대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고, 즉 그분의 은총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나머지 인류로부터 분리되어 특별히 그분의 소유가 되었고, 그분의 은혜로운 감독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살핌을 받았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는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있습니다. 많은 과일 – 좋은 과일.